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김 세 현
(부산대)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원문에 내포되지 않은 불균형적인 젠더 편견이 한국어 자막번역에 투영된 사례에 대하여 수용자의 인식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젠더 편향¹⁾적인 자막번역을 조사한 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사례별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인 성(sex)과는 달리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별을 나타내는 말로써, 이러한 ‘젠더는 영상번역에서 어떻게 변이되어 재현되는가?’라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젠더와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번역학계에서도 젠더와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의미

1) 본고에서 의미하는 ‘젠더 편향’(gender bias)이란 남녀 모두에 적용되는 사회화된 성 차별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사용된 ‘젠더 편향’이라는 용어는 모두 ‘성차별’로 바꿔 쓸 수도 있으나, ‘성차별’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부정적 함의, 여성 지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자는 ‘젠더 편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있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첫째, 여성의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이라는 한쪽 성에 치우친 측면이 있고, 둘째, 원천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을 목표 텍스트에서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며, 셋째, 주로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첫째, 남녀를 막론하고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적인 표현을 사용한 번역에 주목하고, 둘째, 원천 텍스트가 전달하는 의미에는 젠더 편향성이 없으나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어 목표 텍스트에서 젠더 편향성이 투영된 경우를 다루고자 하며, 셋째, 문학이 아니라 영상번역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영상번역에서의 젠더 연구가 문학 텍스트 중심의 페미니즘 번역연구(Feminist Translation Studies, FTS)와 다른 점은 영상텍스트의 대중성에 있다. 페미니즘 번역연구에서는 특정 페미니스트 작가가 쓴 텍스트를 특정 독자층이 취사선택하지만, 영상번역 기반 젠더 연구에서는 수용자가 일반 관객이고 이들 일반 관객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젠더 편향적인 표현이 수시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러한 표현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페미니즘 언어학자 도일(Doyle 1995: 5)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성차별적 언어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성차별적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인될 수 있다”면서 성차별적 언어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을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사례만을 기술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자인 일반 관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원문에 내포되지 않은 젠더 편향성이 한국어 자막에서 나타난 사례를 조사하여, 이러한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이 수용자들에게도 젠더 편향적이라고 인식되는지, 또한 젠더 편향성이 없는 원문 중심 번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번역이 더 선호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영상번역에서의 젠더번역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 동향을 논의한다. 이어 3장에서는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으로 확인된 사례를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 결과를 제시한다. 설문 내용에는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해 제시된 개별 사례에 대한 젠더 편향성 인식 여부와 선호도가 포함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고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와 한계점을 논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동향

2.1 젠더번역 연구: 다학제적 접근

본 연구의 출발점인 젠더번역 연구는 페미니즘 번역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페미니즘 번역연구의 계보를 되짚어 보면 체임벌린(Chamberlain 1988)이 번역의 가부장적 은유화 문제를 제기한 이래, 고다르(Godard), 드 로트비니에르-하우드(De Lotbiniere-Harwood), 폰 플로토우(von Flotow) 등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 번역을 연구한 퀘백 학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번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들 퀘백학파는 자신을 페미니스트 번역가로 표방하였으며 실험적인 여성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함으로써 가부장적 지배 언어를 전복시키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관점의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는데 토니 모리슨 작품의 번역본에서의 ‘하이재킹’ 전략을 분석한 김가희(2015), *The Awakening*의 젠더번역 사례를 연구한 마승혜(2015), 페미니즘 SF 작품의 두 번역본을 결텍스트와 역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상빈·이선우(2018), 페미니스트 번역 이론을 바탕으로 『주홍글자』 번역본 7권을 비교·분석한 정선혜(2018)의 연구가 있고 불-한 언어 쌍에서는 보부아르의 『제2의 성』 번역본에 나타난 성적 표현을 연구한 유미향·박정윤·이영훈(2012)이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며 문학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원문 텍스트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번역텍스트에서도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수잡·사라예바(Susam-Sarajeva 2005: 168-170)의 지적에 따르면, 페미니즘 번역연구라면 으레 문학번역으로 인식하기 십상이고 여성의 정체성 회복에만 치중해 남성이나 동성애 정체성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젠

더번역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영상번역에서의 젠더번역은 드 마르코(De Marco 2006a, 2006b, 2009, 2011, 2012, 2016)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분야의 유일한 단행본인 *Audiovisual Translation through a Gender Lens*(De Marco 2012)는 영상 텍스트에 나타난 젠더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며 언어적(인물들의 대화 방식), 시각적(인물들이 화면에 제시되는 방식), 청각적 차원(더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소리의 높낮이 변화)에서 영상번역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자막번역 교육에서 젠더적 관점을 도입하자는 연구(De Marco 2011), 영상번역 젠더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젠더화 전략’(engendering approach)을 제안한 연구도 있다(De Marco 2016). 그 외 영상텍스트의 장르별로 영화(바움가르텐(Baumgarten) 2005)와 시트콤(토토(Toto) 2009; 페럴(Feral) 2011; 란자토(Ranzato) 2012)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고 분석 대상별로는 여성(Feral 2001)과 게이(Toto 2009; Ranzato 2012)를 다룬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The Routledge Handbook of Audiovisual Translation*(Pérez-González ed. in press)에 영상번역에서의 젠더의식 고취를 주장하는 ‘Gender in 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 Advocating for Gender-Awareness’(폰 플로투와와 조세피-에르난데스(von Flotow & Josephy-Hernández) in press)가 수록되면서 해당 분야가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상빈(2016, 2017)과 김세현(2017)의 연구가 영상번역에서의 젠더에 관한 연구에 해당하며 각각 영화 <Sex and the City>, 수입차 광고, 디즈니 영화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젠더 편향적인 번역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까지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영상번역에서의 젠더번역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젠더 편향적 번역 사례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젠더 편향적 언어를 다룬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2 젠더 편향적 언어 관련 국내 동향

이번에는 젠더 편향적 언어와 관련된 국내 연구 현황을 학문 분야별로 살

펴본 다음, 이러한 젠더 편향적 언어를 규제하는 국내의 관련 법규를 알아보겠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법규까지 검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대수준을 가늠하게 해주고 향후 이러한 표현을 개선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1 젠더 편향적 언어: 국내 연구 현황

젠더 편향적인 언어에 관한 국내 연구는 크게 국어학, 영어학, 번역학 계열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국어학 계열 연구는 국립국어원 주관의 기관 연구와 개인 연구로 나뉜다. 국립국어원의 차별 표현 연구 사업 중 성차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조태린(2006)의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차별적, 비 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와 안상수 외(2007)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개인 연구로는 이정복(2007), 김형배(2007), 박동근(2014) 등이 있는데, 성차별 언어를 주제로 한 이정복(2007)은 국어사전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언어의 실태를 연구하였다. 상위 개념인 차별 언어의 하위 개념으로 부속되는 항목으로써 성차별 언어를 다룬 연구에 김형배(2007)와 박동근(2014)가 있는데 각각 방송과 법률 조문에서의 차별적 언어 표현을 조사하였다.

영어학 계열 연구로 최용선(1997)은 영어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영어 모국어 화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안 표현을 제시한다. 김귀순(1999)은 영어 작문 시 성차별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 표현을 제시하고, 박승혁(2009)은 성중립적으로 쓰이는 명사 *man*과 총칭어로 쓰이는 3인칭 단수 남성 대명사 *he*의 성차별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당 어휘의 시대별 변천 과정과 용례를 살펴본다. 이처럼 국내 영어학 계열 젠더 편향 언어 연구는 대체로 영어 교육의 맥락에서 영어 대명사의 젠더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적 표현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번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로 영어에서 성과 관련된 비속어에 투영된 성차별적 인식을 다룬 박승혁(2012)이 있는데, ST에 투영된 성차별적 인식을 TT에서 어떻게 재생산하여 번역하였는지 논의할 경우에 참조할 만하다.

다음으로 번역학 계열 연구로 김옥동(2012)은 한국 속담에 내재된 성차별주

의와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고, 조영주(2014)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별어에 대한 통·번역 대학원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어에 대한 통·번역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직 번역학에서 젠더 편향적인 번역 사례를 분석하거나 그에 대한 일반 수용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없었으며, 더구나 영상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영어 원문 텍스트에 의도되지 않은 젠더 편향성이 한국어에 투영된 경우를 다루고자 하므로, 상기 연구들 중에서 한국어 성차별 표현을 다룬 국어학 계열 연구를 참조하고자 한다. 안상수 외(2007)는 한국어 성차별 표현을 다룬 가장 큰 규모의 국책 연구인데, 해당 연구자들은 대중매체에서 사용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유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 실태를 파악한 다음,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표현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개념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안상수 외(2007: 25-28)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 및 개념

유형	개념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형제애’ 등이 있다. ② 호명순서가 불균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남녀, 신랑신부, 부모” 등이 있다.
선정적 표현	① 대상을 사소하고 천박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② 사람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로 여성의 경우 “여편네, 아줌마, 아(아내 호칭시)” 등이 있으며, 남성 관련으로는 “건달, 놈팽이, 제비족” 등이 있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②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여성의 경우 “미모, 꼬리친다, 여우” 등이 해당되고, 남성의 경우 “과감한, 슈퍼맨, 늑대” 등을 들 수 있다.
불필요한 성별 강조	여성임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2.2 젠더 편향적 언어: 관련 법규

젠더 편향적인 언어와 관련된 법규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의 기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자막번역은 넓게 보면 미디어라는 매체에 해당하므로 미디어 내 양성평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겠다.

우선, 관련 법규의 최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의 인권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는 아래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²⁾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자막번역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12월 28일 개정·공표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는 다음과 같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중략)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을 부정적, 회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중략)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개정 조항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알려서 양성평등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동참시키고자 안상수·김인순·강혜란·박경희(2016)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이 발간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2) 연구자 강조

서 젠더 편향적인 언어 사용과 관련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5. 방송에서는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배적, 권위적인 것을 바람직한 남성성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바람직한 여성성으로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정 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정 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의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 여성민주회의 「성평등적 관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라인」³⁾, 국가인권위원회·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제4장(성평등) 조항 등이 마련돼 있다.

현재까지 영화 자막번역을 직접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참조하여 학계 혹은 제도권에서 자막번역의 젠더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동시대의 수용자가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작업은 꼭 필요한 과정이자 유의미한 시도라고 판단된다.

3.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설문조사

3.1 설문방법

설문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진행했는데, 부산과 충청지역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4일부터 2018년 4월 6일까지 이메일 및 집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 조사에서는 집합 대면조사로만 설문을 하여 응답률을 높였고, 설문 문항에 내재된 가정(implicit assumption) 없이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설문지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선호도를 묻기 전에 해당 번역을 젠더 편향적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도 추가되었다.

3) 안상수·김인순·박경희(2007: 18-20)에서 재인용

본조사는 학부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첫째 주에 실시되었는데, 불완전 응답 등 결측치를 제외하면 총 114개가 유효 응답 수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5명, 여성이 79명이었다. 응답자가 응답 시 윤리적 자기검열을 하지 않도록 연구 취지와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구두 및 지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설문지에서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개념을 소개한 다음, 설문 문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경험 유무와 전반적인 인식에 관해 물었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 사례 8개에 대하여 젠더 편향성 인식 여부와 선호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⁴⁾ 이 항목에서는 해당 자막번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화 맥락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캡처 영상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과 그에 따른 설문 결과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 보겠다.

3.2 설문결과

집합 대면조사 실시 후 응답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에 코딩하여 정리한 다음,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항별 설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 전반적인 인식

이번 섹션에서는 크게 3문항으로 나누어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을 접한 경험유무와 그에 대한 불쾌감 인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는데 경험 유무를 독립 변수로, 불쾌감 인지와 개선 필요성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 이 단계에서 영어 ST가 참고용으로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ST와의 비교가 아닌 젠더 편향적인 한국어 자막(번역)만을 직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사전 설명을 하였다.

〈표 2〉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경험 유무와 인식

유형	경험 유(%)		경험 무(%)	
	불쾌감 인지	불쾌감 미인지	불쾌감 인지	불쾌감 미인지
특정 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	47.37	21.05	8.77	22.81
특정 성 비하 번역	50.88	9.65	14.91	24.56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54.39	11.40	7.89	26.32
불필요한 성별 강조 번역	47.37	9.65	14.91	28.07
유형	개선 필요	개선 불필요	개선 필요	개선 불필요
특정 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	53.51	14.91	7.89	23.68
특정 성 비하 번역	47.37	13.16	17.54	21.93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54.39	11.40	11.40	22.81
불필요한 성별 강조 번역	45.61	11.40	19.30	23.65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을 이전에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불쾌감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평균 50.00%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12.94%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번역의 개선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평균 50.22%가 ‘그렇다’를, 12.72%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전에 접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평균 11.62%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평균 25.44%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젠더 편향성 개선 필요성을 답하도록 하였더니 14.0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23.03%가 ‘필요치 않다’고 답하였다. 다시 말해, 이전에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접한 이들은 대체로 불쾌감을 느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형별 응답을 살펴보면 이전에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을 경험했던 이들은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번역’에 대하여 가장 큰 불쾌감을 느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성별을 이유로 고정관념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 코딩 과정에서 선정적인 번역에 대한 남녀 응답이 엇갈리는 현상이 확인되어 ‘선정적인 번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별을 독립 변수로 설정

해 불쾌감 인지와 개선 필요성을 비교해보았더니 성별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선정적인 번역에 대한 불쾌감이나 개선 필요성에 있어서 남성은 ‘아니다’(각 62.86%, 65.71%)가 ‘그렇다’(각 37.14%, 34.29%)보다 높았지만, 여성은 ‘그렇다’(각 64.56%, 73.42%)가 ‘아니다’(각 35.44%, 26.58%)보다 높게 나타나 선정적인 자막번역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성적 표현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박은하(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조사 결과, 이전에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을 접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불쾌감을 느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을 접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번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수록 젠더 편향성에 좀 더 민감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잠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위 문항들은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질문이었고 실제 번역 사례를 제시할 경우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다음 젠더 편향성 인식 여부와 선호도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막번역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성별 불평등과 젠더 이슈를 감지하는 능력인 젠더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다. 자막번역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충실한 내용 전달, 유머 효과 등)의 총합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젠더감수성이 갖는 중요도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다음 <표 3>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예비 조사에서 같은 질문의 결과가 30% 내외로 확인이 되어 30%를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였고, 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젠더의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요약하면, 젠더의식은 자막번역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지닌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표 3> 자막번역에서 젠더의식의 중요도

구분	n	%
0%	1명	0.88
0~5%	5명	4.39
5~10%	15명	13.16
10~30%	47명	41.23
30% 이상	46명	40.35

마지막으로 젠더의식의 중요도와는 별개로 젠더의식이 자막번역 시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번 문항에서는 젠더의식의 필요 빈도와 함께 젠더의식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재차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필요 없다’를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제시하였는데, 앞서 젠더의식의 중요도를 0%라고 응답한 남성 1명은 이번 문항에서도 ‘필요 없다’고 답하였다. 그 외 응답자는 모두 ‘맥락상 요구될 때만’ 혹은 ‘항상 필요하다’를 선택하여 대체로 젠더의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맥락상 요구될 때만’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은 것은 자막번역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른 이해가 중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번역을 수용자가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표 4〉 자막번역에서 젠더의식의 필요 빈도

구분	n	%
필요 없다	1명	0.88
맥락상 요구될 때만	67명	58.77
항상 필요하다	46명	40.35

3.2.2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 사례별 선호도

이번 소절에서는 실제 자막번역에서 젠더 편향성이 투영된 사례를 선정한 다음, 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젠더 편향적 자막을 선정하기 위해 안상수 외(2007)에서 제시한 유형(표1 참조)을 따르되, 이 가운데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⁵⁾’을 제외하고 ‘특정 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 ‘특정 성 비하 번역’,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번역’, ‘불필요한 성별 강조 번역’의 4가지 유형에 부합하는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을 위해 장르 불문 총 20편의 영화를 분석하였으나, 젠더 편향성이 확

5)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는 “남녀, 부모, 신랑신부” 등 호칭 순서에서 남녀가 불균형적인 예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단지 성별을 나타낼 뿐이고 순서상으로 누군가는 앞서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자체로는 성차별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연구자들도 이것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정하고 있다(안상수 외 2007: 6).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 시 불필요한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유형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인된 영화는 아래와 같이 총 6편으로 집계되었다.

〈표 5〉 젠더 편향적 자막 포함 영화 목록

영화 제목	개봉연도	장르	등급
스파이	2015년	액션, 코미디	15세 이상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2014년	액션, 어드벤처, SF	15세 이상
007 스카이폴	2012년	액션	15세 이상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2016년	미스터리, 판타지	12세 이상
물란	1998년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전체 관람가
툼레이더 2: 판도라의 상자	2003년	액션, 판타지, 어드벤처	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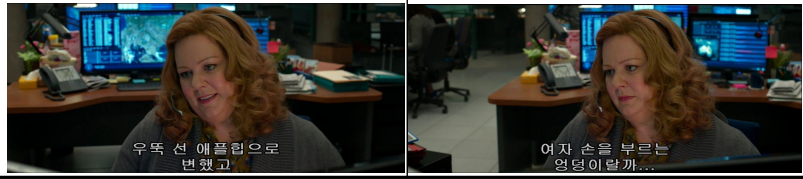
〈표 5〉의 영화에서 확인된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의 사례는 총 8개⁶⁾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어휘 유형별로 분석하면 비속어(된장녀), 유행어(찌질하다, 애플힙), 성별 충칭어(계집, 여자), 부정적 의미의 단어 추가(몸매가 민폐, 아줌마, 퀘퀘한 냄새)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젠더 편향성의 대상을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대상(된장녀, 계집, 여자, 아줌마, 몸매가 민폐)이 5건, 남성 대상(찌질하다, 애플힙, 퀘퀘한 냄새)이 3건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 더 많았다.

그리고 해당 자막이 포함된 영화들은 <미스 페레그린>을 제외하면 대체로 남성성이 강조되는 액션 장르 영화(<스파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007 스카이폴>, <툼레이더 2>)이거나 시대적 배경이 남성 중심적(<물란>)이었다.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분석된 사례 수가 적지만, 남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액션 영화나 가부장적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물에는 젠더 편향적 표현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잠정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설문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젠더 편향적인 표현이라고 인식하는지, 또 젠더 편향적이지 않고 원문에 충실한 대안 번역과 비교하여 어떤 번역을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도록 하였다.

6) 확인된 사례 수가 다소 적은 것은 원문 자체에 젠더 편향성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고 원문에 없는 젠더 편향성이 번역문에 부여된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표 6〉 사례 1: 특정 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1)



원문) Yeah, you just seem looser.
Like, in **your hips**.
I mean **athletically speaking**.
I don't know. I guess
you don't seem so awkward.

번역1) 더 유연해졌잖아 외엉덩이도
우뚱 선 **애플 힙**으로 변했고
여자 손을 부르는 엉덩이랄까...
7)번역2) 요가 덕분에 더 유연해졌네요
엉덩이도 운동선수 못지않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사례 1은 영화 <스파이>에서 발췌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에 해당한다. 본부에 근무하는 여성 요원이 근육질의 남성 현장 요원에게 유연한 몸놀림 덕분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남성 요원의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의 대화이다. 원문에 없는 ‘우뚱 선 애플 힙⁸⁾’, ‘여자 손을 부르는 엉덩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성이 부각되고 있다. 먼저, 번역1의 젠더 편향성 여부를 물었더니 70.18%(80명)가 ‘그렇다’를, 29.82%(34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젠더 편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젠더 편향적이지 않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2를 제시하여 두 번역 중 어떤 번역을 선호하는지 물었더니 15.79%(18명)가 번역1을, 67.54%(77명)가 번역2를, 16.67%(19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젠더 편향성이 없는 번역을 선호했다. 또 선호하는 이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번역1을 선호한 응답자들은 ‘웃어넘길 수 있어서’, ‘유머 요소가 부각되어서’,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유머러스한 느낌이 든다’ 등 유머와 연관된 답변을 하였다. 번역2를 선택한 이유로는 ‘번역1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번역1은 성희롱에 가깝다’, ‘중립적이다’ 외에도 ‘원문에 충실함’(12명) 등이 있었는데, 응답자들은 번역1의 젠더 편향성을 지적하거나 충실한 자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7) 번역2는 모두 연구자 번역임.

8) 애플 힙: 엉덩이 부위가 탄력 있게 올라붙은 형태를 일컫는 말.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사용자 참여 정보)

‘영화를 못 봐서 잘 모르겠다’를 이유로 들었고, 이는 나머지 사례에도 공통으로 나타났다.

〈표 7〉 사례 2: 특정 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2)

 <p>날 관통해서...</p>	 <p>그 몸매로 입어봐야 민폐지</p>
<p>원문) - He shot him straight through me. Soviet slug. No rifling. Bye-bye, bikinis. - Yeah, I bet you look terrible in them now.</p>	<p>번역1) - 핵기술자를 쏘어. 관통해서... 총알은 구 소련제였고 다시 비키니 입긴 글렀지 - 그 몸매로 입어봐야 민폐지 번역2) - 핵기술자를 쏘어. 관통해서... 총알은 구 소련제였고 다시 비키니 입긴 글렀지 - 상처 때문에 흥해졌겠는데</p>

사례 2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 발췌한 여성에 대한 선정적인 번역이다. 나타샤(스칼렛 요한슨)가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스티브(크리스 에반스)와 대화하는 내용이다. 작전 중 부상으로 생긴 나타샤의 상처를 가리키며 스티브가 한 말은 ‘그 몸매로 입어봐야 민폐지’라며 몸매라는 선정성을 부각하는 조롱 조의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1이 젠더 편향적인지 물었더니 72.81%(83명)가 ‘그렇다’를, 27.19%(31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여 대부분 젠더 편향적인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또 대안 번역인 번역2와 비교하여 그 선호도를 물었더니 9.65%(11명)가 번역1을, 78.95%(90명)가 번역2를, 11.40%(13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젠더 편향적이지 않은 번역을 선호했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로, 번역1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유머가 살아 있다’, ‘실감 난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반면, 번역2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번역1은 여성에게 특정 몸매를 추구하라고 강요한다’, ‘번역1은 뜬금없고 불쾌하다’, ‘번역1에서 굳이 몸매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외에도 ‘원문에 충실함’, ‘원문에는 몸매에 대한 언급이 없다’, ‘1은 캐릭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는 신사입니다’, ‘아픔에 공감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다’ 등으로 답변했다. 번역1

에서 몸매에 대한 언급이 불쾌하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였고,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과의 연계, 원문과의 충실성을 이유로 든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표 8〉 사례 3: 특정 성을 비하하는 번역(1)



원문) What the fuck are you doing in here, asshole? Why is that so hard to believe? Because you look like a flute player in a wedding band.	번역1) 여긴 왜 왔어, 이 똥뽕아? 꼬라지가 장례식서 곡하는 아줌마 같잖아 번역2) 왕재수가 여긴 왜 왔어? 칙칙한 꼬락서니 하고는 결혼식 반주하러 왔냐?
--	--

사례3은 영화 <스파이>에서 발췌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양속 관계인 언더커버 요원들이 작전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에서 남성 요원이 여성 요원에게 하는 말이다. 남성 요원은 ‘똥뽕아’, ‘아줌마 같다’라며 미혼인 여성 요원에게 외모를 근거로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번역1이 젠더 편향적인지 답하도록 하였는데 64.91%(74명)가 ‘그렇다’를, 35.09%(40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였고, 대부분 젠더 편향적인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번역1과 번역2 선호도 비교에서는 18.42%(21명)가 번역1을, 71.93%(82명)가 번역2를, 9.65%(11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주로 젠더 편향적이지 않은 번역을 선호하였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로, 번역1을 선호한 응답자들은 ‘재밌는 표현이 몰입을 돕는다’, ‘더욱 와 닿음’을 비롯해 ‘상대방에게 적대시하는 설정에서 적당하다’, ‘문맥상 어울린다’ 등으로 응답하여 재미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고려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번역2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번역1의 아줌마는 여성 비하 같다’, ‘번역1은 여성 관객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듯’, ‘불편하지 않다’, ‘훨씬 더 자연스러우며 여성 비하적인 단어가 쓰이지 않아 좋다’, ‘있는 그대로 번역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번역1이 젠더 편향적인 표현이라도 재미나 상황이 중요하다고 여긴 응답자들이 있었던 반면, 응답자 대부분은 성 비하적인 표현에

불쾌함을 느끼거나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한 번역에 손을 들어주었다.

〈표 9〉 사례 4: 특정 성을 비하하는 번역(2)

	
원문)	번역1) 예쁘네요
She's pretty.	된장녀 같지만
If you like that sort of thing.	번역2) 예쁘네요
	저런 스타일이 좋다면요

사례4는 영화 <007 스카이폴>의 여성 비하적 발언으로, 제임스 본드가 악당의 여자 실바와 만난 직후 MI6 요원 이브 머니페니가 이어폰을 통해 본드에게 지령을 내리면서 실바에 대해 잠시 언급하는 대목이다. 머니페니의 ‘If you like that sort of thing’은 ‘된장녀’라는 성비하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응답자에게 번역1이 젠더 편향적인지 물었더니 82.46%(94명)가 ‘그렇다’를, 17.54%(20명)가 ‘아니다’를 선택해, 대다수가 젠더 편향적인 번역으로 인식하였다. 두 번역의 선호도 비교에서는 10.53%(12명)가 번역1을, 82.46%(94명)가 번역2를, 7.02%(8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역시 젠더 편향적 번역보다 대안 번역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로, 번역1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 ‘이해가 더 잘 됨’ 등으로 응답하였고, 반면, 번역2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번역1의 된장녀라는 말이 불편해서’, ‘된장녀는 여자 비하 단어’, ‘된장녀와 관계없는 내용이다’, ‘외모적인 걸로 비난하지 않아서’, ‘번역2는 원문을 더 잘 번역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번역1의 된장녀라는 표현이 이해도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응답자 대부분은 이러한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 된장녀: 명품 소비를 지향하며 과시형 소비를 일삼는 여성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

<표 10> 사례 5: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번역(1)



<p>원문)</p> <p>Miss Peregrine: We discuss this later, Emma</p> <p>Jake: It wasn't their fault. Honestly, just they were just trying to help. Emma: Thanks. <u>You're not as bad as I thought.</u></p>	<p>번역1)</p> <p>미스 페레그린: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엠마 제이크: 애들은 잘못 없어요 그저 절 도우려고 그랬던 거죠 엠마: 고마워 생각보다 짜질하지 않네</p> <p>번역2)</p> <p>미스 페레그린: 나중에 얘기 좀 하자, 엠마 제이크: 애들은 잘못 없어요 그저 절 도우려고 그랬던 거죠 엠마: 고마워 생각보다 나쁜 애는 아니구나</p>
--	--

사례5는 영화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에서 발췌한 것으로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번역에 해당한다. 미스 페레그린(에바 그린)가 엠마(엘라 퍼넬)를 훈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제이크(에이사 버터필드¹⁰⁾)가 엠마를 두둔해주고, 엠마가 이를 고마워하는 장면이다. 엠마는 제이크의 할아버지가 예전에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 제이크가 자신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별종이 아닌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제이크에게 안 좋은 편견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 그리 나쁜 애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You're not as bad as I thought'라고 말한다. 하지만 번역1에서는 번역자가 원문에 없는 냉소적인 의미를 부가하여 '생각보다 짜질하지¹¹⁾ 않네'라고 한다. 번

10) 주인공인 에이사 버터필드는 큰 키에 마른 몸, 창백하리만치 흰 얼굴이 특징으로 전형적인 남성 마초 이데올로기와 상반되는 미소년의 외모를 갖고 있다.
11) 짜질하다: (1) (속되게)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전문가 감수 정보) (2) 외모와 됴됨이가 형편없어 보이는 남자.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사용자 참여 정보)

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주인공의 외적인 이미지가 영화 속 구원자라면 통상적으로 가질 법한 강인한 남성상이 아니라 다소 유약해 보이기 때문에 추정된다. 남성 마초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주인공의 외모를 바탕으로 번역자가 해당 텍스트에 자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원문에 내포되지 않은 남성성(masculinity)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조되고 있다. 응답자에게 번역1만을 두고 젠더 편향적인지 물었더니 53.51%(61명)가 ‘그렇다’를, 46.49%(53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여, 이전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번역1과 번역2를 비교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더니 22.81%(26명)가 번역1을, 60.53%(69명)가 번역2를, 16.67%(19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젠더 편향적이지 않은 번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1의 젠더 편향성을 묻는 질문에서 이전보다 ‘그렇다’라는 응답이 낮은 것은 ‘찌질하다’는 어휘가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문과 대안 번역을 함께 비교하도록 한 선호도 질문에서는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배제된 번역2가 더 많이 선호되었다. 이러한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번역1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말 같음’, ‘친숙한 표현이라’ 등의 응답이 있었고, 번역2의 경우 ‘고마워하는 건데 찌질하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찌질하다는 표현이 싫음’, ‘찌질이라는 표현은 인간적으로 모욕적이다’, ‘번역2는 영어문장과 일맥상통’, ‘원문과 더 비슷’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찌질하다’는 표현에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더 선호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표 11〉 사례 6: 특정 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번역(2)



원문) Just because I look like a man doesn't mean I have to smell like one.	번역1) 남자 행세한다고 퀴퀴한 냄새 까지 풍길 필요는 없잖아 번역2) 남자 옷을 입었다고 냄새까지 같을 필요는 없잖아
--	---

사례 6은 영화 <물란>에서 발췌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성으로 위장해 군에 자원입대한 물란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 늦은 밤 강가에서 몰래 몸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 대사다. 원대사 ‘look like a man, smell like one’에서 one은 남성 총칭어를 지시하는 표현이지만, 한국어 자막에서는 남성이라면 퀴퀴한 냄새가 날 거라는 고정관념을 투영해 ‘퀘퀘한¹²⁾ 냄새’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1을 젠더 편향적이라고 보는지 물었더니 54.39%(62명)가 ‘그렇다’를, 45.61%(52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여, 젠더 편향적인 번역으로 본 응답자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 수와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번역1과 번역2의 선호도를 비교하였더니 35.09%(40명)가 번역1을, 50.00%(57명)가 번역2를, 14.91%(17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젠더 편향성이 없는 번역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번역1을 선호한 이유로는, ‘내포된 의미 해석’, ‘당시 군인의 상황을 알 수 있음’ 등의 응답이 있었고, 번역2를 선호한 이유로는 ‘번역1이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반영한 것 같다’, ‘1은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음’, ‘남자한테 냄새난다는 편견이 없어서’, ‘정확한 번역이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자 중 다수가 ‘퀘퀘한 냄새’라는 표현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표현을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또한 정확하고 충실한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 역시 확인되었다. 반면, 번역1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로부터 선호되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상번역에서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지양하는 것만큼이나 영상 텍스트 내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퀘퀘하다: 상하고 찌들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구리다. 규범 표기는 ‘퀴퀴하다’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표 12〉 사례 7: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번역(1)



원문) I'll pay you an additional \$12 million dollars. It will be yours once you've delivered the orb... Along with Lady Croft's body .	번역1) 구슬을 가져오면 바로 지불한다 물론 <u>그 계집 시신도</u> 함께 번역2) 구슬을 가져오면 바로 지불한다 라라 크로프트 시신도 함께
--	--

사례 7은 영화 <툼레이더 2: 판도라의 상자>에서 발췌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번역에 해당한다. 주요 악당의 우두머리가 또 다른 악당 조직과 거래하면서 라라 크로프트(안젤리나 졸리)를 죽여오라고 지시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다. 악당 우두머리가 사용한 ‘Lady Croft’라는 호칭에는 그녀가 영국 백작 가문인 크로프트가 출신¹³⁾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한국어 자막에서는 ‘계집¹⁴⁾’이라고 번역되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크로프트의 귀족 신분이 제거되어 여성이라는 성별만 강조하는데 이를 좀 더 비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응답자에게 번역1이 젠더 편향적인지 물었더니 66.67%(76명)가 ‘그렇다’를, 33.33%(38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여 젠더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번역1과 번역2의 선호도 비교에서는 21.93%(25명)가 번역1을, 68.42%(78명)가 번역2를, 9.65%(11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로, 번역1은 ‘악역에 어울린다고 생각함’, ‘나쁜 놈의 발언으로 적절하다’, ‘위협적인 분위기와 잘 맞는다’ 등의 응답이 있었고, 번역2를 선호한 경우 ‘계집은 여(자)혐(오) 단어라서’, ‘계집은 여자를 낮추는 말이라서’, ‘있는 그대로 번역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계집이 아니라 여자도 이름을 가졌다’ 등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계집’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젠더 편향적 인식이 있었고, 번역에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

13) 라라 크로프트는 대표적인 여성 영웅 캐릭터로서, 남성 비서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한국어 자막에서 해당 남자 비서는 그녀에게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14) 계집: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이었다. 반면 번역1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젠더 편향적이지만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보았는데 사례 6과 마찬가지로 젠더감수성을 갖추는 것만큼이나 영화 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표 13〉 사례 8: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번역(2)



원문) She'll never be worth anything.

번역1) 잘나봐야 **여자가** 뭘 하겠나

번역2) **제 까짓 게** 대단해 봤자지

사례 8은 영화 <물란>에서 발췌한 것으로 사례7과 같이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번역에 해당한다.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벼슬아치 ‘치푸’가 흉노족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물란의 업적을 비아냥거리며 하는 대사다. 영어 원문은 ‘She’라는 주어틀 사용하여 물란 개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에서는 ‘여자가’라는 총칭어로 번역되어 여성이라는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번역1의 젠더 편향성 여부를 답하도록 하였더니 74.56%(85명)가 ‘그렇다’를, 25.44%(29명)가 ‘아니다’를 선택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번역1을 젠더 편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 번역1과 번역2의 선호도 비교에서는 28.95%(33명)가 번역1을, 64.91%(74명)가 번역2를, 6.14%(7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선호하는 이유로 번역1은 ‘시대상 맞는 것 같음’, ‘가부장적 사고를 지닌 캐릭터가 할 만한 말이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적절하다’ 등의 응답이 있었고, 번역2는 ‘여자가 아닌 개인으로 대우해야 한다’, ‘번역1은 여자 전체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저 한 인물을 비꼬는 거지 여자 전체에 대한 말은 적절하지 않다’, ‘“여자가”, “남자가”라는 말 때문’ 등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강조하는 ‘여자가’라는 단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이를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번역1이 영화의 시대상,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록 젠더 편향적이더라도 상관없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상으로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의 사례에 대하여 젠더 편향성 인식 여부와

선호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으로 제시된 사례(번역1)에 대하여 실제로 젠더 편향적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전체 평균 67.43%(77명)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전체 평균 32.57%(37명)가 ‘아니다’라고 답하여 대다수가 젠더 편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젠더 편향적 번역(번역1)과 그렇지 않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번역2)을 비교하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68.09%(78명)가 번역2를, 전체 평균 20.39%(23명)가 번역1을, 11.51%(13명)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젠더 편향적인 번역보다 그렇지 않은 대안 번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영화의 상황과 맥락, 인물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며 젠더 편향성을 용인하는 경향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폐쇄형 문항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었다.

3.2.3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 자유 응답

이번에는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대한 평소 경험이나 생각을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내용은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용인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응답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기타 의견

젠더 편향적 번역을 용인하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고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불필요하다. -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영화의 재미상 유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성평등 자막만 쓰면 재미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은 영화 장르나 영화 캐릭터마다 다르다고 생각되며 그 캐릭터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젠더 편향적 번역에 부정적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가 변하는 만큼 영화자막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젠더 편향적이지 않게 번역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원어 대사가 젠더 편향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어 번역에서 번역자의 가치관이 부여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젠더 편향적 번역을 용인하는 입장에서는 영화의 맥락, 인물의 성격, 유희적 효과를 위해서라면 용인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젠더 편향성이 영화 장르나 등급, 목표 관객별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젠더 편향적 번역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자막번역에도 이러한 인식 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 외 다수의 응답자들이 남녀 사이의 높임말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부부 혹은 평등한 관계 사이에서도 기본적으로 남성은 여성에게 반말을, 여성은 남성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번역이 불편하게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높임말 문제는 일회적이지 않고 영화가 지속되는 내내 발생하는 위계적인 표현이므로 수용자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본고에서는 단어 차원의 젠더 편향적 표현에 주목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문법 차원의 젠더 편향적 번역을 다룰 필요성이 확인됐다.

3.2.4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 요인 분석

지금까지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의 사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자막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분석한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의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번역자 개인의 의식성이 원인일 수 있다. 번역자 개인이 젠더문제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면 젠더 편향적인 번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젠더의식이 높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번역자의 의식성에 따라 이러한 젠더 편향성을 줄이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텍스트적 요인으로 영상 텍스트 자체의 서사구조나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로 인해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번역 과정에서 임의로 젠더 편향성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영상 텍스트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독하여 영화 전체의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기술적 요인으로 자막의 공간적 제약(한 줄에 약 12자) 때문에 젠더 편향적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3, 4, 5가 공간적 제약 때문에 젠더 편향적이지만 짧은 표현으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요인은 다른 요인(화용적, 텍스트적 요인)에 비해서는 그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넷째, 화용적 요인으로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사용해서라도 유머라는 발화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회적인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유머 효과를 통해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의 네 가지 요인 가운데 번역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번역자의 의식성이다. 나머지 요인들은 어느 정도 본질적인 제약이 있지만, 개인적 요인의 경우 번역자가 젠더의식을 갖고 접근한다면 자막번역의 젠더 편향성 정도는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영상 텍스트를 상업적인 상품으로만 기능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젠더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영상번역에서의 젠더 재현 변이’라는 연구 주제의 일환으로 원문에 내포되지 않은 젠더 편향성이 자막번역에 투영된 양상과 그러한 번역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탐색해 보았다. 젠더 편향성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젠더 편향적인 자막번역에 해당 사례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응답자는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에 불쾌감을 느꼈고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을 유형별로 나누어 질문했을 때, 선정적인 자막번역에 대해서는 남녀

응답자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 응답자는 여성보다 선정적인 자막번역에 대해 불쾌감을 덜 느꼈고 개선 필요성도 적게 느꼈다고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막번역시 영화의 목표 관객 성별에 따라 선정적 표현 사용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젠더 편향적 번역에 대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불쾌하게 인식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했으나, 개별 사례를 제시하며 선호도를 물었을 때는 사례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젠더 편향적인 번역에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자막번역에도 높아진 현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반대로 젠더 편향적인 번역을 선호한 응답자들은 표현이 젠더 편향적이더라도 영화의 서사구조와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번역가에게 높은 젠더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영상 텍스트 해독 능력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번역 교육 설계시 영상번역가가 젠더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영상 텍스트를 해독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적인 높임말 사용 문제를 다수가 지적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차원의 젠더 편향적 표현에만 한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높임말 사용 등 문법 차원의 젠더 편향적 표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설문조사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표집 설계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의 수, 연령대, 지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 연구의 대표성이 다소 결여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수를 충분히 확대하고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시된 사례 역시 다른 번역연구에 비교해 적은 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배경 시대별, 장르별, 영화등급별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원문에 없는 젠더 편향성이 번역자막에 투영된 사례에만 한정하였으나, 원문 자체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젠더 편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자막에 재생산되고 어떻게 수용되는지 이번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사례선정 과정이나 설문내용 구성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단계별

로 제삼자 검토 등을 거쳐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편향적 자막번역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용자 인식 및 선호도를 조사한 보기 드문 연구였다. 또한 영상번역을 대상으로 젠더번역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번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관련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영상번역의 수행이나 교육에 있어 보탬이 되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가희 (2015) 「문학번역 텍스트의 전용: 하이재킹(hijacking) –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151-170.
- 김귀순 (1999) 「영어 명사의 성차별 지양을 위한 작문 사례 연구」, 『영어교육연구』 11: 69-93.
- 김육동 (2012) 「속담의 성차별과 젠더 번역」, 『통번역학연구』 16(4): 109-127.
- 김형배 (2007) 「한국어의 불평등한 언어문화에 관한 연구 – 방송 언어를 대상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20: 157-186.
- 마승혜 (2015) 「한국 젠더 번역 사례 연구 – *The Awakening*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3): 23-52.
- 박동근 (2014) 「법률 조문의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한말연구』 34: 73-103.
- 박승혁 (2009) 「Man과 He: 영어의 성차별」, 『여성학논집』 26(2): 67-98.
- 박승혁 (2012) 「성과 관련된 영어의 성차별 표현」, 『영미어문학』 104: 275-299.
- 박은하 (2008)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성차이어와 성차별어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상수 외 (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김인순·박경희 (2007)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모니터링 결과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안상수 · 김인순 · 강혜란 · 박경희 (2016)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미향 · 박정윤 · 이영훈 (2012)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Le Deuxième sexe*) 번역본 비교」, 『번역학연구』 13(5): 143-173.
- 이상빈 (2016) 「자막번역에 의한 여성 재현의 변이: 영화 <섹스 앤 더 시티 2>의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2): 59-80.
- 이상빈 · 이선우 (2018)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SF 소설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1): 147-176.
- 이정복 (2007)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257-300.
- 정선혜 (2018) 『페미니스트 번역이론과 『주홍글자』 번역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 (2014) 「통번역 수업에서의 일본 차별어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번역학연구』 15(3): 253-278.
- 조태린 (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최용선 (1997) 「영어의 성차별 현상」, 『사회언어학』 5(2): 53-85.
- Baumgarten, Nicole (2005) ‘On the Women’s Service? Gender-Conscious Language in Dubbed James Bond Movies’, in José Santaemilia (ed.)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 Manchester: St. Jerome, 53-69.
- Chamberlain, Lori (1988) ‘Gender and the Metaphorics of Translation’, *Signs* 13(3): 454-472.
- De Marco, Marcella (2006a) ‘Audiovisual Transl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 167-184.
- De Marco, Marcella (2006b) ‘Multiple Portrayals of Gender in Cinematographic and Audiovisual Translation Discourse’. *MuTra: Audiovisual Translation Scenarios: Conference Proceedings*. 19-33.

- De Marco, Marcella (2009) 'Gender Portrayal in Dubbed and Subtitled Comedies', in Jorge Díaz Cintas (ed.) *New Trends in Audiovisual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80-200.
- De Marco, Marcella (2011) 'Bringing Gender into the Subtitling Classroom', in Laura Incalcaterra McLoughlin *et al.* (eds)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es and Subtitling: Theory and Practice*. Peter Lang.
- De Marco, Marcella (2012) *Audiovisual Translation through a Gender Lens*, Amsterdam & New York: Rodopi.
- De Marco, Marcella (2016) 'The "Engendering" Approach in AVT',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Special Issue: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28(2): 314-325.
- Doyle, Margaret (1995) *The A-Z of Non-Sexist Language*, London: The Women's Press.
- Feral, Anne-Lise (2011) 'Gender in Audiovisual Translation: Naturalizing Feminine Voices in the French Sex and the City',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8(4): 391-407.
- Kim, Sehyoun (2017) 'Gender Portrayed in Audiovisual Translation: Focusing on Disney Movies', *Children's Literature and Translation* 33: 61-82.
- Ranzato, Irene (2012) 'Gayspeak and gay subjects in audiovisual translation: strategies in Italian dubbing', *Meta: Translators' Journal* 57(2): 369-384.
- Susam-Sarajeva, Sebnem (2005) 'A Course on Gender and Translation', in José Santaemilia (ed.) *Gender, Sex and Translation: The Manipulation of Identities*, Manchester - Northampton, MA: St. Jerome, 161-176.
- Toto, Pier Antonio (2009) "'Less about Sex, More about Shopping': Will & Grace e il linguaggio gay", in Susan Petrilli, and David Buchbinder (eds) *Masculinities. Identità maschili e appartenenze culturali*, 153 - 158.
- von Flotow, Luise, and Daniel E. Josephy-Hernández (in press) 'Gender in 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 Advocating for Gender Awareness', in Pérez-González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Audiovisual Translation*, Routledge.

<인터넷 참고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 (접속일자: 2018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https://www.humanrights.go.kr/common/download.jsp?fn=%EC%9D%B8%EA%B6%8C%EB%B3%B4%EB%8F%84%EC%A4%80%EC%B9%99.PDF&realname=%EC%9D%B8%EA%B6%8C%EB%B3%B4%EB%8F%84%EC%A4%80%EC%B9%99.PDF> (접속일자: 2018년 4월 3일)

네이버 국어사전 krdic.naver.com (접속일자: 2018년 3월 19일)

[Abstract]

**An Audience-response Questionnaire Survey
on Gender-biased Language in Korean Subtitling**

Kim, Sehyou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aspects of gender-biased language in Korean subtitling and to investigate audience responses for gender-biased English-Korean translations. To this end, a small scal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14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most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gender-biased subtitle translations, and felt discomfort from them. And they thought the translations should be revised to rectify the gender bias. However, when respondents were asked to choose preferred translations between gender-biased and non-gender-biased ones, responses were rather varied depending on the characters and the context of the film. The directions of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with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 Key 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gender bias, subtitling, questionnaire survey, sexism

▶ 주제어: 영상번역, 젠더 편향, 자막, 설문조사, 성차별주의

김세현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sehyoun@pusan.ac.kr

관심분야: 영상번역, 번역과 젠더,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5일